

교회 목표

1. 천국일꾼을 키우자
2.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3.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충현

발행인:신성중
편집인:윤명식
편집국장:손경수
발행처: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62-8300 FAX: 563-3932
사서함:영동우체국 1896호

1992년도 목회 지침 표어: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주제성구:"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14:23)

전 교인이 성경 공부 하자

체계적으로 잘 배워 믿음 생활 철저히
성경연구원 9월 5일 개강 예배

우리 교회 성경연구원이 주관하는 주간성경공부를 비롯한 교사양성부, 찬양대원양성부가 오는 9월 5일 개강 예배로부터 시작된다.

전 교인이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므로 믿음 생활에 철저를 기하고,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통하여

적그리스도와 이단에 현혹되지 않게 된다.

주간성경공부는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아침, 저녁으로 각 과목별로 실시되며, 교사양성부는 주일반과 화요일반으로 나뉘어 12월 6일까지 계속된다. 그리고 찬양대원양성부는 매주 월

요일 오후 7시부터 실시되며, 이 모든 교육 과목의 강사는 당회장 신성중 목사를 비롯하여 우리 교회 부목사들이 강의를 맡게 된다.

온 성도가 성경연구원 학생이 되어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자.

우리 농촌에 도움을 드립시다

지난 주 기보한 바와같이 구제 위원회(위원장 박치민 장로)와 전도위원회(위원장 최상규 장로)에서는 오는 9월 2일(수)부터 5일(토)까지 강원도 정선군 용산교회 성도들이 생산한 감자를 사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수입 개방과 가격 하

살롬경로대학
임시소집

살롬경로대학(학장 신성중 목사)은 오는 9월 17일 개강을 앞두고 임시소집하여 2학기를 준비키로 하였다. 60세 이상 노인(불신자 포함)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고 있다.

· 일시: 9월 3일 오전 11시

· 장소: 갈릴리홀

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 교회 교인들을 돕는 의미에서 이 운동에 관심 있는 성도들의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장소: 식당 뒷편(지하 1층 주차장)

· 가격: 5관(20kg)에 8천원

권사회 전체 월례회
9월 6일 갈릴리홀에서

권사회(회장 전순자 권사)는 오는 9월 6일 전체 월례회를 개최한다.

이날 2시 30분에 본당 앞 계단에서 김창인 원로목사와 당회장 신성중 목사를 모시고 사진 촬영을 한 뒤, 장소를 변경하여 갈릴리홀에서 3시 30분부터 월례회를 갖게 된다.

92년도 농어촌 전도대
보고 및 평가회

지난 8월 3일과 10일 파송되어 전도 활동을 전개했던 92년도 농어촌 전도대의 보고 및 평가회가 8월 22일 오후 6시 베다니홀에서 열렸다.

약 70명의 전도대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김해규 목사의 설교와 김경철 장로의 사회, 강협 장로의 기도로 먼저 예배를 드린 후, 박상준 집사의 사회로 전도하면서 체험한 간증과 결실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93년도에는 보다 발전적인 모습으로 전도 활동을 전개하기로 다짐하였다.

카메라 초점



▲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된 충현기도원 부흥성회

일본 선교 방문 은혜 중에 마쳐

일본 선교 방문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지난 8월 24일 귀국하였다.

방문단은 일본에 머무는 동안 도요하시 호산나교회와 합동으로 노방전도를 실시하였고, 특별 전도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와라비 교회에서 열린 선교세미나에도 참가하였고, 1993년도의 제2회 한일 청년교류대회에 관해서도

협의하였다. 또한 일본의 복음동맹교단과 복음자유교회협의회에 보내는 당회장 신성중 목사의 서신을 전달하였다.

이번 일본 선교 방문은 일본 교회와의 교구 협력과 우리의 선교적 지원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선교적 은혜를 받고 새롭게 재무장하는 계기였다.

93년도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설명회

◆ 일시: 8월 30일 오후 3시

◆ 장소: 갈릴리홀

◆ 참석자

- 장로, 안수집사
- 남녀 교역자
- 각 위원회 및 기관의 서기, 회계
- 교회학교 남녀 부감, 처장
- 찬양대 부대장, 서기, 회계
- 교회 행정부서 과장

고3 위한 특강

고등부(부장 최성현 장로, 지도 장봉생 목사)는 고3학생들의 바른 신앙 생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특강을 실시한다.

· 일시: 9월 6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선교관 메추라기홀

· 주제: 기독교 학생의 가치관

· 강사: 장봉생 목사

직 원 모 집

충현교회에서는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헌신 봉사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한다.

· 직종:경비직

· 제출서류: 이력서,

당회장추천서,

주민등록등본

· 제출기한: 9월 2일

· 제출처: 사무국 총무과

계간충현원고모집

· 원고내용: 시, 수필, 전도체험기, 간증, 배가운동 및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한 제언

· 원고매수: 2백자 원고지 15매 내외

· 원고마감: 9월 30일

· 제출처: 선교관 407호

충현프리즘

◎...봉사관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 사회를 위한 선교의 장소로 사용될 이 봉사관은 제대로의 공정만 지켜진다면 금년 추수감사절엔 완공될 것 같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 소요 자금이다. 그동안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일부 건축 헌금을 내신 분도 계시지

만 전 교인이 힘을 모아 봉사관 건축이 예정 일자에 완공되도록 더욱 힘써야겠다.

◎...기도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금년 배가운동 목표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24시간 연속 기도회와 각 교구, 교회학교, 남녀전도회, 찬양대원들의 기도의 열기는 꺼지지 않아 계속 불타고 있으며, 지난 주간 충현기도원에서 개최되었던 기도원 부흥성회도 교회의 교인배가운동과 기도

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기도로 승리합시다"의 표어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실천할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주시고 교회 부흥도 더디지 않을 것이다.

이미 시작한 우리의 기도 운동이 계속 활활 타오르기를 기대한다.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에 있다.

주일 아침 외부에서 각 부서로 들어오

는 음식물 때문에 뜻있는 성도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가 주일 성수 차원에서 교회 식당을 이용, 국수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는데도 계속 주일 아침 교회 동문을 통해 들어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

교회학교, 찬양대, 남녀전도회 임원진들의 자성이 필요하다.

교회 설립 기념 음악예배

◆ 일시: 9월 6일 저녁 7시

◆ 장소: 본당

◆ 주관: 할렐루야찬양대

· 곡목: 모짜르트 곡 대관식 미사

· 지휘: 김영준 집사

· 오케스트라 지휘: 남궁조 선생

· 반주: 김신영 선생



충현강단

신성종 목사

금식할 때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마6:16~18)

요즈음 시한부 종말론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약 3만명 정도가 이들 이단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최근 검찰에서까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단은 역사적으로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성도들을 미혹하여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단에 한번 빠지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생활의 질서가 사라져버립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때

입니다. 그들은 금욕주의를 주장하는데 그 근본은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되었다는 사상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육체는 더럽고 영혼은 순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적인 즐거움을 부정하기 위해서 금욕주의를 주장하며 특별히 신부들의 독신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인간의 육체가 더럽다고 한 곳은 없습니다.

금식에 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둘째는 건강상의 이유로, 셋째는 간접 살인이라는 뜻으로 금식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금식을 반대한 곳이 없습니다.

다. 물질 위주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은 너무 많습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을 더욱 많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

금식 자체만으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기도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바쁜 생활은 대개 물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벗어나서 금식을 해보면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게 됩니다.

3. 금식의 방법

제가 처음 충현교회에 와서 부교역자들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금식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지는 의견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3일 금식을 하면 신약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으며 찬송도 15개 정도는 외울 수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제대로 하면 배고픈 것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고 찬송도 외울 수 있

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마 6:16)

금식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만 사람에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력이 있지도 않으면서 영력이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 외식해서는 안 됩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지 말라

외식하는 사람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들에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에 제대로 씻지도 않고 지저분하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금식은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금식이 아닙니다. 오직 경건하게 금식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아무 때나 금식하지 말라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금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초대 교회 당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낼 때에 금식 기도를 했고, 고넬료도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또 영적인 생활을 위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행10:30).

사회가 질서 있게 움직이기 위해서 권위가 필요합니다. 권위는 영적인 능력에서

금식 기도는 영적 생활과 천국 창고를 여는 열쇠

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은 세 가지를 중시했습니다. 즉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그것입니다.

1. 금식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금식은 아시아권의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속죄일(레16:32)에 주로 금식했는데, 이 날은 의무적으로 누구나가 금식을 해야 했습니다. 이때에는 식사, 음주, 성생활, 목욕, 그리고 기름을 바르는 일 등, 인간의 쾌락을 좇는 모든 일을 금지했으며 오직 금식에만 전념을 다해야 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도 금식을 합니다. 소위 라마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 역시 유대교와 비슷한 금지 조항 즉 목욕, 음주, 흡연, 오락, 향수 뿌리는 일 등을 금지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금식은 어떠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금식을 비판하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주의자들 가운데는 금식을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최근 들어 복음주의자들도 금식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에 금식에 관하여 간접적인 교훈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심으로써 기도와 금식을 연결시켜 말씀해주셨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금식에 많은 의미를 부여

예수님은 참된 금식과 잘못된 금식을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잘못된 금식을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금식해야 할까요? 거짓된 금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이고도 바른 금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2. 금식을 해야 할 이유

첫째, 건강을 위해서

적당한 금식은 영혼과 육체에 매우 유익합니다. 다이어트와는 그 개념이 다릅니다. 금식 생활을 하게 되면 현대의 잘못된 식생활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적당하지 못하게 금식할 때 잘못되면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 훈련을 위해서

인간의 가장 큰 적은 자기 교만입니다. 적당한 금식을 할 때 자기 교만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관과 고통을 통해서 인간이 교만을 물리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할 때에 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흡연이나 음주, 도박이나 마약 사용 등의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금식 기도를 통해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는 동안 그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황금만능주의에서 벗어나고 또 그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식을 통하여 나쁜 습관과 교만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어

어서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고픈 줄 모르고 금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며 동시에 영적인 면에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서도 이미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4. 금식 기도를 할 때 주의할 사항

첫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

비롯됩니다. 땅에 떨어진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영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 우리가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결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위해 열쇠를 주셨으며 천국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열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는 마스터 키와 같은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영적인 생활을 위하여, 가정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한 생활을 위하여 금식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력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1. 들어가는 말

뉴 에이지 운동(New Age Movement, 새시대운동)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기독교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주제를 서술함에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 좁은 지면과 서술자의 부족한 식견은 물론이려니와 뉴 에이지 운동이 공식적인 중심 단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성격도 아니며, 뉴에이지(New Age, 새 시대)란 명칭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대의 문명을 벗어난다고 새로운 가치관을 통해 새 시대를 건설하자는 사상 지향적인 각종 운동을 통칭하여 부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 에이지 운동의 정체를 밝히고 이에 대응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 운동은 한국 사회는 물론 이제 한국 교회에까지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

2. 뉴 에이지 운동의 정체

뉴 에이지 운동은 왜 일어났으며, 사상적 원천은 무엇인가? 또한 이 운동의 기본 정신과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이며, 어떤 활동을 통해 그 목표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1) 발생 배경

왜 뉴 에이지 운동이 일어났는가? 20세기 인류의 장미빛 희망-급진적인 문명의 발전을 통한 유토피아의 도래가 두 차례의 세계 대전으로 산산조각나버렸다. 그러나 실망은 잠깐뿐. 물질 문명의 발달은 정신 문명을 파트너로 삼지 않고 혼자 독주를 계속했다. 그 결과 인류는 오히려 물질 문명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각종 사회 제도와 구조 역시 인간을 스스로 판단하는 자유인이 되게 하기 보다는 반대로 인간을 억압하고 속박하게 되었다.

▶ 총현론단 ◀

뉴 에이지 운동과 기독교의 대응(1)

장봉생 목사(고등부 지도)

1. 들어가는 말
2. 뉴 에이지 운동의 정체
3. 우리나라에 나타난 뉴 에이지 운동의 흐름
4. 기독교의 대응

그리고 서구 기독교를 포함한 기성 종교계마저 예외가 아니어서 희망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서서히 사회의 한 쪽에서 모든 기존 문화에 대한 반(反)문화 운동을 벌이게 하였다. 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본격적인 반문화운동은 사상적 기반을 필요로 하였는데, 그 돌파구로 동양의 정신 세계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끝없는 명상과 수행(修行)을 통해 우주와 하나됨으로 마침내 완전한 세계에 이를 수 있다고 믿어온 동양의 사상가들에 이에 부응하였으며(특히 인도에서 많이 행해지는 요가 등의 밀교(密敎)적 수행법), 동양의 신비주의적 사상을 받아들인 서구 세계의 반물질문명주의자들은 인간의 영적 능력을 통해 멸망해가는 물질 문명의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뉴 에이지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2) 사상의 원천

특정한 종교나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출발한 운동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서 발생한 반문화운동에서 시작된 뉴 에이지 운동은 기존의 사상들이 필요에 따라 적절히 결합된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동양 사상, 기독교 사상, 그

리고 사탄주의(Satanism)를 들 수 있는데, 먼저 동양 사상적 배경을 잘 보여주는 증거로 실제 뉴 에이지 운동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신지학협회"가 힌두교 사상 위에 설립되었다는 것이다.

힌두교의 중요한 사상은 브라만(Brahman)과 아트만(Atman)인데, 전자는 "우주적 본체"를, 후자는 "독자적인 자아"를 가리킨다. '독자적인 자아'란 육체를 벗어버린 진정한 자아(영혼이라 할 수 있음)이다. 우파니샤드의 중요한 개념은 '브라만은 아트만과 하나'라는 범아불이(梵我不二) 범아일여(梵我一如) 사상이다. 이러한 우주와 인간이 하나라는 사상은, 바로 인간이 스스로 영적인 각성을 통해 인신(人神)이 됨으로써,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세계를 변혁시킬 수 있다는 뉴 에이지 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성에 의한 진리의 깨달음보다는 명상, 요가, 수행 등에 의한 깨달음을 강조하는 힌두교의 밀교적 전통은 뉴 에이지 운동의 방법론에 막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불교 역시 만물을 범신론적 입

장에서 하나로 보는 것이나, 업(Karma)에 따라 세계가 윤회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운동 법칙은 뉴에이지사상에 영향을 미쳤다.

기독교와는 외견상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오히려 배타적인 대

립의 양상을 띠고 있지만, 그들이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들이 성경 -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매우 중요하게 보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야(또는 구세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기독교의

뉴 에이지 사상은 인간이 영적 각성을 통해 신이 될 수 있다는 사상

메시야 개념과 다른 것으로 지구보다 훨씬 고압화된 세계에서 인류 구원을 위해 초인(超人)들이 내려와 진리를 가르치는데, 석가, 모하메드, 예수, 소크라테스 등이 있다고 한다.

특히 뉴에이지 계열에서 발간한 <예수의 잃어버린 세월>, <예수와 붓다의 대화> 등도 참고할 수 있겠다. 예수님에 대한 뉴 에이지 운동의 견해는 이단 영지주의(Gnostic)와 유사한 입장을 지니고 있다.

사탄주의와의 관계에서 볼 때, 흔히 뉴 에이지 운동을 사탄 숭배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하기도 하나, 실제로 뉴 에이지 운동은 사탄주의를 배격하는 입장이다. 오히려 뉴 에이지 사상은 사탄이란 특정한 존재에 의존해서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영적 각성을 얻게 되면 비교적(秘敎的)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3) 기본 정신

① 세계관

우주는 원래 하나의 존재이며 이를 '우주대영' (Universal Spirit)이라고 한다. 뉴 에이지 사상에 의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주대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주와 우주대영 속에 있는 만물들은 그 기원이나 영원성에서 실의 본질이나 절대적 통일체와 일체(一體)이다. 지구는 칠중(七重)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는 인간 의식 상태의 진화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의식의 공간으로서 인간 스스로 영적 각성을 통해 우주대영에 가까워지는 단계인 것이다.

② 신관

신 역시 우주대영으로부터 나와서 그 원리에 따라 우주를 다스리는 존재이다.

③ 인간관

인간도 우주대영의 개체적 존재이자 동시에 우주대영 그 자체이기도 하다. 내면에 신성의 불꽃(Divine Spark)을 가지고 있는 영적 자아로서 실제로 전지(全知)한 존재이다. (계속)

장로칼럼

시한부 종말론



강순웅 장로
(장년4부 부장)

최근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사회가 시끄럽고 교회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분명 성경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불완전한 장래에 재림할 것을 약속했다.

그런데 문제는 소위 '다미선교회(대표 이정림씨)' 등의 사이비 집단에서 금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하고, 학업에 열중한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또 가정의 식구들은 집을 팔아 예수님 맞이한다고 거액을 다미선

교회에 바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때 경찰에서도 시한부 종말론에 현혹된 집단들에 대하여 집중 수사와 구속까지의 강경 방침을 세워놓고, 사회 병리 현상에 일대 매스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열댓 TV를 보니 시한부 종말론을 추종하는 집단의 예배 의식이 화면에 비추어졌는데, 6인조 밴드 음악에 맞추어 찬송을 부르고, 손뼉을 치며, 곡조에 가까운 기도나 행언할 수 없는 동작으로 누군가를 부르고 있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어린 청소년들이라는 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가슴을 치고, 통곡에 가까운 몸짓은 차마 보기에 딱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교회 교육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 지도자의 신앙 교육 미숙인가? 사탄의 장난인가? 혼탁한 사회가 물러온 탈교회의 부산물인가? 아무래도 이 문제는 한국 교회가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순진한 청소년과 일부 기성교인들에 큰 손해를 볼 것 같다. 기복 신앙 형태의 예배 의식도 고쳐쳐야 하며, 지나친 신비주의, 교인의 정서를 감정으로 이끌어 무분별하게 "주예!"를 찾으며 열광하는 스트레스 해소식의 기도 방법도 지양되어야 하겠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재림하신다. 그러나 그 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인자만 안다고 했다. 우리는 늘 재림 예수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에서의 복음 사역과 생활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삶의 태도도 좌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우리 교회는 엄청난 교인들이 출석하기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에 미혹된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다. 각 교구와 구역 작구들이 권속들을 돌아보면서 신앙 지도를 좀더 철저히 하고, 만약 이상한 교인이 발견될 때는 즉시 지도 목사에게 알려 빠른 성경 교육을 받도록 안내가 필요하다.

덧붙여서 각 교구의 구역장들은 구역파의 식구들을 심방할 때에 각 가정에서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문제, 특히 기도를 요청하는 일들을 잘 파악하여 부지역장, 지역장, 교구장, 그리고 지도 교역자에게 알리는 일을 철저히 하고 믿음없는 구역 관리를 함으로써, 비성경적인 행위자 침투되지 못하도록 더욱 힘써야 하겠다.

사회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우리 크리스찬들이 순수범하여 경건한 신앙 생활, 절제와 검소한 생활에 앞장서고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바른 신앙 생활을 해야겠다.

우리 한번 생각해봅시다.
어쩌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큰 교회를 지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할 일 다한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았던가요? 우리가 참 큰일을 하였다고, 우리는 할 만큼 하였다고, 이젠 조금씩만 해도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고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차례라고,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는 않았나요?

그러나 생각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름다운 건물이었나요? 그 분에게 돌성전이 필요하여 지어 바치라고 하셨나요? 아름다운 건물은 미국에도, 구라파에도 많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보다 더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던가요? 성전에 넘치도록 구원받은 성도들의 뜨거운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성전을 지은 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었고, 우리의 수단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성전을 짓는 것보다도 더욱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날마다 이루어가는 일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하고 이제야말로 우리는 기도를 더욱 힘써야 할

때임을 확인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곧

명이 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작은 교회보다도 더 작은 교회요 더 가난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어리석음을 벗어나고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참으로 연약함을 내어놓고, 우리의 더러움을 고백하며 애통한 기도하십시오.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눈을 돌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기도하십시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연약하던 자가 강하여지고 의심하던 자가 확신을 갖게 되며, 형식적이던 자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방황하던 자가 길을 찾게 되며 병든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완악한 심령들이 날마다 주님께 돌아오며, 입술이 둔한 우리가 나아가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간절히 힘써 구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성회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날마다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더해지도록 우리 힘써 기도하십시오.

◆독자의 글◆

배가아름답게 붙여

성영호 집사(제4교구)

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하시는 책망을 들을까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셨음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큰 사

여름의 헌신 뜨거운 기도

김운섭 집사(장년2부)

겨우내 봄내
기도 쌓아 수질한 반석

아! 하나님,
신앙의 싹뿌리 생명 돌고

혈관 속 시내처럼 흘러
움켜잡은 영혼

한 서린 모서리에
백박의 원망 소리

불먹은 여름 익고 익어
더위 꽃힌 불헛살

움직이는 말씀의 장을 넘겨
당신께 붙어사는 여린 영혼

맘내음 짙은 육체
마음 뜨겁게 질여진 믿음

인내의 아픔 딛고
뜨거운 기도의 화합

무더위 마귀는
한낮 태양을 쏘아

삼복 더위 그웁한 신앙
하나님 뜻 담으면

인간을 꺾고
신앙을 시들게 하지만

여름을 태우는
더 뜨거운 우리들의 기도 소리

태초의 궁창 신비 헤치며
구름물고 비오니

젖은 우주 공간을 휘감는
믿음 엮고 생기 있는
성도의 기도여

시든 가슴벌판
가냘픈 숨소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듯이, 오늘 주님의 몸된 성회교회를 통하여 오직 아버지의 뜻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십시오. 이것만이 우리의 원하는 것이 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 구역예배 ●
(1992. 9. 4)

물질에 대한 청지기

· 본문 : 누가복음 16장 1절~13절 · 찬송 : 302장, 372장
· 요절 :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주된 관심사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이 물질은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을 사랑하고 그것을 우상화 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돈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물질에 대한 청지기직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잘 배우고 또한 그대로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1.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한 그것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재물 자체를 모으는 것이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관리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의 궁극적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인의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주인의 뜻대로 물질을 관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빗나가게 될 때에 결국 죄가 드러나고 불의한 청지기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2. 그리스도인은 물질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온갖 지혜를 짜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서 물질을 모으고 때로는 쓰기도 합니다. 이토록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지혜롭게 처신하고 있다면 하물며 빛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이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물질을 사용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불의한 곳으로 인도하기 쉬운 물질을 오히려 하늘에 쌓아둌으로써 영원한 처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3.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으로 물질을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시8:6)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커다란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이지 섬길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이며, 최소한 물질이 타락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도록 관리하고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 결론

누군가가 말하기를 “물질은 당신이 무엇이든지 살 수 있게 하되 행복은 살 수 없게 하고, 또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는 여비를 내게 하되 하나님 나라에 가는 여비는 달 수 없게 하는 도구이다.”라고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물질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맡아 관리하고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할 청지기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대로 물질을 사용한다면 훗날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에 불의한 청지기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적용 및 기도

1.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구역의 모든 식구들이 물질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사랑하게 하옵소서.